

# 점과 선의 무지개를 만나다

### '아트광주21 프리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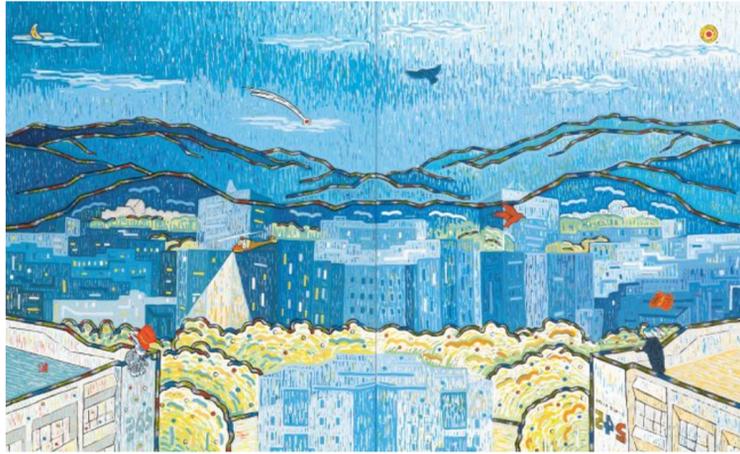
동곡미술관, 16일~10월24일  
윤익 총감독 '아트테크' 특강

최근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아트마켓이 열리고 있다. 광주극장, 담양담주예술구 등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작가장터'가 열렸고, 꾸준히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미로마켓 언앤오프'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21)'는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올해부터는 개인 부스 대신 갤러리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등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아트광주 21'은 전시 분위기 조성과 지역컬렉터와 작가들의 문화교류장 역할을 할 전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 이화갤러리 등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리뷰'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에는 미술 전시회를 만나기 어려운 광산구에서 전시회를 개최, 눈길을 끈다. 보문고 입구에 자리한 재단법인 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영현) 동곡미술관(광산구 어등대로 529번길 3)과 아트



이두관 작 '관조'

광주 21 사무국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광산구에 문을 연 동곡미술관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리는 '아트광주21 프리뷰: 점과 선의 무지개를 만나다' 전에서는 10월 열리는 아트마켓에서 판매예정인 작품들도 일부 전시된다.

전시에는한희원·이아남·윤세영·이두환·김용환·김영화·노은영·신호재·정미희·최순일·박

유자·박성완 등 32명의 작가가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조각, 미디어 등 모두 7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16일(오후 6시)에는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특별강연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익 아트광주21 총감독이 '아트테크와 미술품수집'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그림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혜숙 작 'Remember1980-무등산'

## '여권 통문의 날' 기념 여성의 빛

광주·전남 여성작가회, 17일까지 자미갤러리

광주·전남 여성작가회(회장 김혜숙) 37회 정기전이 지난 6일 개막, 오는 17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여성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여권 통문의 날' (9월1일)을 기념하고 송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기획이다. '여성통문의 날'은 1989년 9월1일 우리나라 최초로 선언된 여성 인권선언문인 '여성통문'을 기념해 지정된 날로, 이 선언문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천양회),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여성 운동의 시작점이 됐다. 이번 전시는 당초 '여성통문의 날'이 지정된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올해 열리게 됐다.

1982년 남경화랑에서 열린 창립 초대전을 시작

으로 38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삶을 꿈꾸었던 선배 여성들의 의지를 기리는 마음을 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빛을 놓지 않고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이어가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강숙자·고정희·최강희·이정주 화백 등 원로 작가를 비롯해 강은주·고은숙·김귀련·노정숙·박해경·변경섭·송유미·이인호·주미희 작가 등 모두 36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공예,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된 작품의 소재도 각기 다른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사계절 풍경, 꽃과 나무, 다양한 인물 군상 등 다채롭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천'

## '영산강 천수(川水)를 누리다'

뢰이킴 사진전, 영산강문화관 온라인 전시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박용순)과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관장 김창호)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작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1 영산강문화관 전시작가 공모 선정전시에 당선된 뢰이킴(Ray Kim·유태준) 작가 사진전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그의 예명에는 '빛'(Ray)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한자로 쓰는 '뢰'는 '꽃봉오리'를 의미한다. '영산강 천수(川水)를 누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조형적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그의 사진 작품은

낮선 이미지로 다가온다. '빛으로 낮췄을 만들어 내는' 뢰이킴은 영산강과 그 주변의 풍경을 자신만의 렌즈로 해석해 해체하고 담아낸다. '광주천' 작품 시리즈에서 빛을 발하는 거센 물살은 익숙한 자연의 이미지를 한번 전복시키며 마치 혼돈의 우주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작가는 자신만의 빛을 이용해 자연의 중첩 이미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성대 문화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광주대 대학원 사진학과(예술사건 전공) 석사 과정을 마친 뢰이킴은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에서 특선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 이동의 흐름, 익숙함... '포스트아트'

광주현대무용단 공연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코로나 19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고 코로나 19는 생활방식, 관계맺음, 소통방식 등 일상의 모든 것을 흔들어놓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지금, 새로운 변화와 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까.

광주현대무용단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춤으로 표현한 'PO\_START, 포스트아트'를 25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최악의 시간을 겪었지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시작점을 무용으로 풀어보고자 기획됐다.

공연은 '이동의 흐름', '변화', '익숙함' 등 총 3개의 파트로 나뉘어 구성됐다. 먼저 '이동의 흐름'에서는 일상 속 균형을 무너뜨리는 소리없는 움직임의 흐름을 통해 한산해진 거리와 사라지지 않았지만 줄어든 사람들의 소리를 보여준다.

'변화'에서는 인간이 적응하고 살아야 했던 생활방식을 뒤엎는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들을 표현했다. '익숙함'에서는 변화된 일상에 점차 적응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등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익숙해져가며 포스트아트로 나아가는 현상을 선보인다.

연출은 광주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임지형이 맡았으며, 안무 김현재, 음악 임주신, 조명 이광득, 무대 이정진, 영상 최성웅 등이 참여한다. 문의 010-6603-800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